

2026.07.19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사사 기드온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큰 구원
본문: 사사기 6장1-6,11-16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기드온은 사사 중에 많이 들어본 사사로 기드온의 300용사로 잘 알려지고 유명한 사사이다. 드보라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 한다. 하나님은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고 이들은 비참한 현실에 굴을 파고 산성을 파서 숨어 지낸다. 미디안으로부터 약탈당하고 곡식, 열매, 가축들을 빼앗기는 가운데 지키려고 발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이들이 부르짖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한 너희는 왜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떠나느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다.[삿6:8-10]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다.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백성의 삶에 말씀 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들을 미디안에서 건지시려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신다.

<본론>

1.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 시도다

▶이런 재앙 속에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약탈을 두려워하며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비밀스럽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타작하며 숨어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다.[삿6:11] 기드온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다.[삿6:12] 선지자를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 많은 생각, 말씀, 묵상이 가득한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나 기드온은 바로 아멘을 하지 않고 반문을 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다.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며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신다.[삿6:14] 그 때 또다시 반문하는 기드온은 미디안의 세력과 엄청난 군사력 앞에 우리 가문은 너무 초라하고 우리 집안의 나는 더 초라한 연약한 자라고 반문한다. 그때 하나님은 또 반문에 답을 주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다.[삿6:16] 기드온은 말씀을 주셔도 자존감, 자신감이 많이 약한 사람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후대가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2.기드온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그가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약한 자였지만 기드온을 도우시고 세워 가신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 있어서 확신할 수 있도록 표징을 구한다. 말씀보다 자신의 모습의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징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는 4번이나 표징을 주신다. 그 첫 번째가 예배하며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신 것

을 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안심하라 죽지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았다하여 그곳을 여호와 살롬,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기드온을 통해 군대를 모집한다. 군대 소집 후에도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가운데 두 번의 표징 이슬과 양털의 표징을 주신다. 마지막은 300명만 남았을 때 적군에게 가보라고 하실 때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마다 모두 다 성향과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세워가면서 쓰신다. 기드온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신다. 너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미디안 군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우상과 우상으로부터 온 재앙을 해결할 자로 먼저 네 집에 있는 바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다.[삿6:27] 이 일로 위기를 만나고 한 지파의 전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기드온의 아버지로 인해 해결되며 이름이 여룹바알로 바뀌게 된다. 하나님은 너는 바알과 싸우는 자라 말씀하신다.[삿6:32] 이때 기드온에게 여호와와 영이 임한다. 붙이신 한 사람과 더불어 충성된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삿6:34] 하나님의 역사로 3만 명이 모인 중에 300명으로 선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사람을 남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격파시키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구원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빌4:13]

3.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들고 쓰임받는 삶

▶기드온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한다. 그동안 보여진 표징을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다 이루고도 그 약점 속에 머물게 된다. 기드온의 실수는 약한 자존감과 약점에 걸려 나온 것이다. 승리를 이끌고 난 후 이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라 달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여룹바알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라는 중심이 깔려 있다. 하나님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서 우상을 이기는 언약을 전달하도록 해야 하고 후대를 살려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명이다. 기드온이 이것을 놓치고 에봇을 만든다.[삿8:26-27]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드온은 처음과 다르게 본질을 놓치고 언약의 진리가 전달되지 않으니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 기드온을 세워주신 정체성 너는 미디안을 이길 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우상을 이길 자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 것이다. 너를 무슨 이름으로 불렀니? 우리는 이 질문을 남긴다. 우리를 무슨 이름과 정체성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언약과 정체성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쓰임 받는 삶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근본을 잊지 말고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ORA' 행사가 아니라 후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 와 명절과 절기로 응답 받기를 바란다.